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 11월 1일

루가 제7주일

성 아나스타시아 로마의 수녀순교자

제4조 /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갈라디아 2, 16-20 / 봉독서 295
- 복음경 : 루가 8, 41-56 / 127. B 7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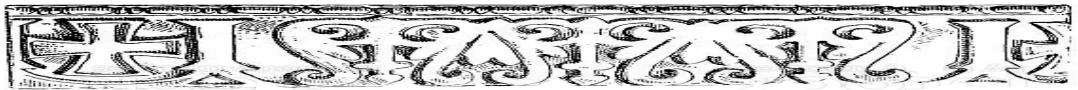
성 뽀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검소한 생활을 하십시오”

하루는 성인께서 한 과부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마십시오. 검소한 생활을 하십시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꼭 거스름돈을 받으십시오. 아이들에게

‘우리는 돈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적게 주십시오. 혹시 아이들이 불평하면 ‘우리는 절약을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은 다 없어지고 말거야.’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돈에 관한 한 당신의 형제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상속자가 될까요?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서를 통해 그의 많은 재산 중 일부를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제일 먼저 그 유서를 찾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 유서를 열어 읽어볼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세심하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많은 재산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그 유서의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인 친척은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냥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로마서 8:16) 즉,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 아닌 자녀이므로 하느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로마서 8:17)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요한 20:17)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는 한 똑같은 상속의 권한을 가집니다. 보통의 재산

분배에서는 장자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장자들의 교회”(히브리서 12:23)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느님의 선택된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계약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서약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히브리서 9:15, 12:24)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새로운 계약은 인증된 것입니다.(마태오 26:27, 마르코 14:24, 루가 22:20, 고린도 전서 11:25) 우리가 “좀 먹거나 녹슬거나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가지고 못하는”(마태오 6:20)

영원한 재물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멀리 멀리 멀리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성을 가지고 새로운 계약(신약성서)을 공부하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고 또한 다음 생애에도 영원한 행복과 안녕을 누릴 것입니다.

† 한국의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대주교



알려지지 않은 현대의 영웅

도브리 도브레프(Dobri Dobrev, 1914년 생) 씨는 불가리아에 사는 103세의 노인으로서 2차대전 때 청력(聽力)을 잃었다. 그는 자기가 손수 만든 옷을 입고 집에서 10킬로미터쯤 걸어서 수도인 소피아로 걸어가 하루 종일 구걸을 한다.

도시의 여러 성당들 주위에 언제나 고정된 모습으로 있으면서 자신에게 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이지만, 그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 전부(우리 돈 5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를 납아서 무너져가는 수도원과 성당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일이나 고아원의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내는데 쓰도록 기부해왔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다. 대신에 그 자신은 매달 정부에서 받는 1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해왔다.

이 노인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래 전 살았던 이집트의 한 은둔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나게 한다. 그 은둔자는 기도 생활로 큰 영적 진보를 이룬 수도자였는데, 자신이 살던 시대에 실제로 가장 위대한 성인은 누구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이런 물음에 대해 하느님께서 대답해 주시길 간청하자, 성령께서 그 수도자더러 알렉산드리아 도시로 내려가 보도록 안내하였다. 그곳에서 수도자는 한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제화공(製靴工: 구두나 신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그 제화공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뒤 도시의 중심부로 내려가서는 그날 밤 잘 곳이 없는 나그네나 외국인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온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었다. 그때 비로소 수도자는 그 제화공이야말로 완전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바로 당시의 위대한 성인임을 깨달았다.

▶ 아타나시아



소식

대교구

■ **신간 소식 : 드미뜨루 스떠닐로아에 『예수 기도와 성령 체험』(10,000원)**
20세기 가장 뛰어난 정교회 신학자 중 한 분이신 루마니아의 드미뜨루 스떠닐로아에 신부가 저술하신 『예수 기도와 성령 체험』이 정교회 출판사에서 새로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20세기 루마니아 정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교회와 서방 교회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한 닉월하고도 영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수많은 저작 중 특별히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느님과의 친교의 문제를 매우 영적인 통찰과 감동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한국 정교회 신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에 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역은 루마니아에 계신 송용기 키프리아노스 신학 박사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을 바자회 결산

지난 10월 22일(일)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바자회’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주일 성찬예배 후 한국,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신자들이 준비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바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신자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준비하고 바자회를 즐겼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성당 주변의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구세주 변모 수도원 방문

인천 성 바울로 성당 부인회 회원들은 지난 10월 21일(토요일) 1일 일정으로 청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었고 회원들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반갑게 맞아 주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아가티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수도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11월 1일(수) ▷ 성 코즈마스와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와 그들의 어머니 테오도티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추도식